



“건강과의 만남, 행복과의 포옹”

보사부 · 5개단체 합동 건강 계몽운동, 그 현장



5개 단체 합동 건강계몽운동 광경



건강 검진현장



서울시민에 전람 배포

4월 보건의 달을 맞이하여, 보건사회부는 지난 4월 8일에 건강계몽운동을 서울역광장에서 전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있었던 이날 행사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가족계획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 AIDS연맹, 중구 보건소 등이 참가해 건강검사, 성상담, 결핵검진, 헌혈 운동 등을 실시했다.

이동모 보건국장 및 각 단체장까지 직접 참가해 계몽운동이 전개되었던 이날 행사에서는 건협 건강검사만도 250여명이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계기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이와같은 계몽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보다 국민 가까이에서 국민 건강관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사의 내용을 소개한다.



이동모 보건국장(사진좌)과
임한중 건협 부회장도
직접 계몽운동에
나섰다.

● 5개단체가 합동으로 건강계몽운동 나서

한 여름 같던 날씨가 사라지기 무섭게 갑작스런 돌풍이 몰아닥친 4월 8일 이른 아침. 10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있을 건강계몽 운동에 참가할 건협 직원들의 바쁜 움직임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이런 날씨에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일행은 서울역 광장을 향해 출발했다.

오전 9시, 서울역 앞에는 건협·가협·결협·적십자사 한국 AIDS연맹 등 5개 단체들이 검사와 상담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느라 부산했다. 이날 국민 건강 계몽을 위해 5개단체에서 동원된 인원만도 40여명이었고, 보건사회부 이동모 보건국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임한중 부회장, 전무근 사무총장, 대한결핵협회 김대규 사무총장, 박병하 보사부 보건교육과장 등을 비롯해 연예인 조춘씨까지 직접 어깨띠를 두르고 국민건강 계몽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 보사부 주관, 건강검사·성상담·결핵검진·헌혈 등

보건사회부가 4월 보건의 달을 맞이해서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이 계몽 운동에서는 건협이 건강검사를, 가협이 모자보건 및 청소년 성상담을, 결협이 결핵검



적지 않은 서울 시민들이 이날, 적어도 한번쯤은 자기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진을, 적십자사가 헌혈운동을, 한국 AIDS 연맹이 홍보 계몽관전 시, 중구 보건소가 AIDS 상담 및 진단 배포 등을 각각 전개했다.

건협이 이날 실시한 건강검사 종목은 혈당측정, 혈액형검사, 혈압측정 등이었으며, 이와 함께 건강상담도 실시했다.

● 건협, 경기지부 특수 이동검진 차량 동원

특히 건협은, 경기지부가 최근 도입한 특수 이동 검진 차량을 동원해 내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버스의 규모도 기존의 검진차량보다 컸지만 외부의 VTR장치, 내부의 각종 특수 검사시설 때문이었던지, 검사를 받기 위해 차량 안으로 들어선 행인들은 감탄의 소리를 내기도 했다.

● 이날 서울시민 250여명이 검사 받아

계몽운동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의 진심어린 노력 덕분이었는지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지나가던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건강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란 줄을 지어 섰다.

이날 건협의 건강검사를 받은 사람만 250여명. 기타 단체에서 상담이나 검진을 받은 사람들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날 서울역 광



이번 건강계몽
운동에는
인기 연예인
조춘씨도 참석해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사진 우측에서 두번째)

장을 지나가던 서울시민들중 꽤나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번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싶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흐뭇해진다. 이런 건강 계몽 운동이 더 많이 전개된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는 상상(?) 때문이리라.

● 여러가지 건강관련 자료도 배부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건강검사, 상담외에, 보건의식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AIDS, 성병, 당뇨병, 결핵, 헌혈 등 질병이나 건강에 관련된 여러가지 자료들도 배부했다.

특기할 것은 인기탤런트 「쌍라이트」 조춘씨가 전단을 배포하여 시민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기도 했다.

장소의 여건이나 약속된 시간 관계상 행사를 끝마쳐야 할 시간. 미처 검사를 받지 못한 행인들의 아쉬움과 계몽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열기가 서울역광장의 차가운 바람이 무색해졌다.

이번 행사를 마치면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 하나를 얻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 생활 가까이에서 그들의 건강을 함께 이야기하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화려한 계획보다도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